

### 축산농 출신, 4년만의 리턴매치서 현직시장 눌러

#### 강인규 나주시장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 출신에 나주시의원을 거친 강인규 후보의 나주시장 당선에 눈길을 끌고 있다.

강인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4년 전, 옛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임성훈 후보에 석패해 출마를 접어야 했던 아픔을 되감았다. 사실상 리턴매치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강 당선인은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무소속 돌풍을 몰고 왔던 임성훈 후보를 잠재웠다.

특히 선대위원장을 맡아 표밭을 누빈 신정훈 전 시장의 든든한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강 당선인은 “시민들은 나주의 변화와 미래를 선택했다”며 “나주 미래 청사진에 큰 장애물인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이 주인 되는 나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나주, 혁신도시로 잘 사는 나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 부부·형제군수... '가족군수 8년 전쟁' 종지부

#### 구충곤 화순군수

화순군수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충곤 후보가 승리하면서 지긋지긋했던 '부부군수' '형제군수' 간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구 당선인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재도전 끝에 승리하면서 가족군수끼리의 '8년 전쟁'에 종식을 선언했다.

이번 화순군수 선거에서도 부부군수 출신 무소속 임호경 후보와 형제군수 출신 전형준 후보가 출마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지만 구 당선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특히 구 당선자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털어 내고 새로운 화순시대를 이끌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구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변화를 선택한 화순군민의 위대한 승리다”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명품화순'의 비전을 통해 화순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화순군민이 바라는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지지율 10% 격차 뒤집은 막판 대역전 드라마

#### 김성 장흥군수

3년 도전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이명흠 현 군수의 압도적인 승리가 접쳐졌던 장흥군수 선거에서는 김성 전 전남도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김성 후보는 지난 2006년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해 낙선 된 뒤 2007년 재선거에서 낙선하고, 2008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되는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선거 막판까지 여론조사 결과, 이명흠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등 한 때 이 후보의 승리가 결정되는 듯했다. 실제, 많은 여론조사 결과 1위 이명흠 후보와 2위 그룹의 격차가 10% 안팎을 유지



지켰다. 하지만 김성 당선자는 선거 막판, 부동층을 꺼안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맞았다. 김성 당선자는 “장흥을 전국 최고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치유와 관광의 '명품 장흥'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지역정치 외길 30년만에... 의리가 가져다 준 승리

#### 유근기 곡성군수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유근기 후보가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역에서 30여년간 정당생활을 하며 잔뼈가 굵은 정치인 출신이다.

최근 유행하는 '의리 열풍'처럼 끈기 있게 한길을 걸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주당 곡성군수 경선에서 탈락했다가 경선에 통과한 경쟁자인 조영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대인 1987년 평화민주당 곡성연락소 부소장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당, 민주당 등 중권 정당야당의 길을 밟아왔다. 또 전남도의원(2002~2006년·2010~



2014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유 당선인은 “곡성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약 30년 만에 군수자리에 오른 만큼 곡성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며 “민심과 호흡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무주공산 무소속 대결서 8년만에 군수직 재탈환

#### 고길호 신안군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박우량 현 군수의 돌연 출마 포기때 따라 무소속으로 치러진 신안군수 선거에서 고길호 전 군수가 당선됐다. 고 당선자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고도 불명예 퇴진한 뒤 8년 만에 군수 자리에 돌아왔다.

그는 전남도위원을 거쳐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신안군수에 당선됐으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불공정한 공천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 후보로 당선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자 한화갑 대표의 지역구인 신안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분의 아니게 불거진 상대후보들과 후보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신안군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새정치 후보·현역 도의원 다 누른 '의지의 무소속'

#### 김욱기 전남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현역 도의원 통합진보당·무소속 후보 간 팽팽한 3파전 승부를 연출했던 전남도의원 나주시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욱기 후보가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전남도의원 선거구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민주당을 탈당 한 뒤 무소속 신분이었던 김 당선자는 동료 의원이었던 통합진보당 안주용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김용갑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했다.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한 나주 지역에는 진보 성향 유권자가 많은데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는 안 후보와의 싸움이 만만찮았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 후보마저 싸움에 뛰어들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명승부가 연출됐다.

김 당선인은 평소에도 새벽 시장을 돌며 일일이 유권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특유의 친화력으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 "커피숍" 매매

- 봉선동 한일병원 근처
- 1층 20평(실평), 최신 인테리어
- 보 2천만원에 월 90만원
- 비/권리금 4500만원
- 월 매출 1200만원 정도
- 문의 - 010,3605,5000

## 오피스빌 "매매"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빌
- 13층, 53평(실33평), 창가 코너
- 전체 우수리, 양동~하천쪽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 1억 5500만원
- 문의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 에 관한 모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비법 배우실 분!</li> <li>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li> <li>NPL과 특수물건만 취급</li> <li>주1회 3개월 완성</li> <li>배우면서 투자 가능</li> <li>단, 상담후 분사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투자 하실 분!</li> <li>소유권 이전으로 보장</li> <li>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같이 쓰실 분!</li> <li>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li> <li>연 사용료 12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li> <li>근저당으로 보장</li> <li>월 10% 이상 이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수 신청 대리!</li> <li>원하는 물건을</li> <li>최소 비용으로 처리</li> </ul>	

**남 / 직원 모집** 남 : 초봉 200만원부터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여 : 초봉 150만원부터  
사무, 입장 활동 및 기타